

다니엘서 예언이 보여 주는 이스라엘과 세계 역사 종말

성경말씀: 단2:24-45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예언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인간 통치 경륜 미리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역사를 조망하는 눈,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몇 백 개 들어 있다.

신약 시대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 메시아 거부, 황폐하게 됨(마23:37-38), 그러나 운명이 정해짐

AD 70년 타이티스의 예루살렘 멸절, 디아스포라, 온 세계로 쫓겨나감.

Christ Killers, (*) 가는 곳마다 멸시 천대, 천주교(어거스틴), 개신교(마르틴 루터 등),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600만 명 학살, 홀로코스트 (*), (*), (*), (*), (*)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 징계 이런 일을 보면서 대다수 사람들, 유대인은 끝이 났다. 겔37:3, 11-13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 대한 복, 땅과 자손들, 중세 로마 천주교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주주의, 프로테스탄트들도 마찬가지, 성경 영해, 이런 것이 무런 1500년 이상 지속됨,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시온주의 운동(*), 유대인들 이스라엘 귀환

미국에서 성경 예언 부흥 사경회, Niagara bible conference(*), 1875-1897, 매해

1.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영해 No! 이스라엘 대체 신학 No! 2. 전 천년 재림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교회가 아니다. 1878년 14개의 Fundamental 믿음 교파 초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모두

스코필드 바이블, 1909년(*), 위키 백과 프로테스탄트 킹제임스 성경 본문, 관주, 6,000년 역사, 어서 연대기 성경에 표기함 (*), 재창조 빼고는 좋은 성경

클라렌스 라킨의 성경 바로 보기 1920, (*), (*) 반유대주의, 나중에 600만 학살 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은 반드시 고토로 되돌아간다.

(*), (*), KeepBible.com 무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다. 안식일, 성전 지으려고 함. 6일 전쟁, 구 예루살렘 성전 터 확보. 2023년 사법 개혁, 조금 더 완전한 유대인들 국가, 강경파 메시아니 유대인들의 득세,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결과 따라서 천주교, 장로교,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신학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부활로 종말을 고했어야만 하는데 여전히 칼빈주의 개혁주의 영해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 눈을 가지고는 성경을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매튜 헨리 이사야서 교회, 톰슨 성경 교회

칼빈이나 루터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 사람들이다. 슄14장 12절, 핵폭탄 같은 것, 계시록 9장 15절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것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제 종말이 가까이 오면서 성경 예언에 대한 지식도 증가한다. 단12:4, 지식의 증가는 예언에 대한 지식의 증가도 포함한다. 이제는 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시대, 동성애, AI 인간 통제, 인간 복제 등 말세의 모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대로 이루어지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성경 외에는 확실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성경 특히 예언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은 다른 어떤 것이 주는 기쁨보다 크다.

나의 유학 생활, 한국에서는 맞보지 못했던 기쁨, 성경의 예언 공부, 미국의 침례 교회 성경 공부 책들 성경이 환하게 열리는 체험

성경의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오늘 < >,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위대하신 하나님의 예언

(*) 인간의 역사는 6,000년(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계시의 발전, 메시아, 사탄 정복
 유대인: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 재판관, 왕정,
 바빌론 포로 생활, 해방, 400년의 침묵기, 예수님 초림, 교회 시대,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주제: 느부갓네살~적그리스도까지 이방인 왕국들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내용: 다니엘서 12장,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지상 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재림과 적그리스도
 등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관한 '70 이레'의 예언이 들어 있다.
 여섯 개의 왕국: 바빌론(2:36-48; 7:4), 메대/페르시아(2:32, 39; 7:5), 그리스(2:32, 39; 7:6),
 로마(2:33, 40; 7:7), 적그리스도(2:41-43), 그리스도(2:34-35; 44-45; 7:9-14)

배경 설명

하나님의 백성의 배교와 타락: BC 721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당
 유대의 바빌론 포로 생활(BC 606, 597, 586), 바빌론에서 귀환(BC 536) 총 70년간의 포로 생활
 바빌론(Babylon)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홍수 이후 이곳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창10:8-11 니므롯). 구 바빌론: 함므라비 등
 신 바빌론: BC 620년경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세움, 이것이 성경의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통치 때에 바빌론 도시와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예의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
 바빌론을 치장하였고(공중 정원, 7대 불가사의) 그래서 이것은 그의 자랑의 하나가 되었다(단4:30)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는 한때 예언에 따라 짐승 같은 신세가 됨(단4).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 시기에도 일하신다: 자신의 백성이 타락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도, 희망이 있다.
 가장 강성한 이교도 나라 바빌론에서 유대인 다니엘을 통해 세상 역사, 유대인 역사를 보여 줌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역사

느부갓네살의 꿈

2장은 가장 중요한 장, 주인공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2:1), 잠을 설침, 무리한 요구(2-9):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모으고 꿈을 내게 알리라.
 지혜자들의 대답(10-11), 왕이 그들을 멸하라고 함(12)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 중 하나(14), 기간 연장 요청(16)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기도(17-18),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은밀한 일을 계시함(19-23)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하는 말(27)
 세상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28-29). 마지막 날들(28), 겸손함(30)
 꿈 설명(31-35) 금, 은, 놋, 쇠와 진흙, 깎아낸 돌, (*) (*)
 형상은 세상 왕국들의 변천,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들의 때(눅21:20, 24)(*), BC 606부터 시작되
 어 환난기 끝까지 진행됨(계11:1-2). 그리고 재림으로 끝이 남(눅21:25-28), 27절 참조
 해석(36-45) 같은 그림

1. 금 머리(37-38): 바빌론(BC 606-536), 주님의 손에 있는 금 잔(렘51:7)
2. 은 가슴과 두 팔(39): 메대 페르시아(BC 536-330)
3. 놋 배와 넓적다리(39): 그리스(BC 330-63(시리아), 30(이집트)), 알렉산더(BC323 사망)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40-43): 로마제국(BC 63-30 이후)
 단8:20-21을 보면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이름이 언급된다.
5. 적그리스도 7년 환난기
6. 세상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44-45), 하늘의 왕국, 돌 왕국
 몇 가지 교훈
 1.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하나님의 역사 주권)
 - a.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신다. 섭리로 주관하신다(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 b.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세우신다(2:37-38). 왕들도 멸하신다.
- 2. 세상의 일들(인간의 업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열역학 제2법칙).
 - a.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노아의 때와 같다. 금, 은, 놋, 쇠, 진흙
 - b. 금(19.3), 은(10.5), 놋(8.5), 쇠(7.8), 진흙(2.0), 비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 c.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진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적그리스도(8:25) 동성애, 인간복제(43절), 노아의 홍수, 롯의 때
- 3.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된다(쇠와 진흙). 평화와 연합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진정한 연합이 안 된다. 사람들의 씨와 결합하려는 자들이 등장한다. 창6장
- 4.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신다.
 - a. 후천년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5왕국이 아니라 6왕국인가: 로마 제국의 두 부분

-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40-43): 로마제국, 두 부분으로 나뉜다(40과 41-43).
 초림 때의 로마 제국(40), 재림 때의 로마 제국(41-43) 이 부분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끝 부분 적그리스도 왕국

예언의 산봉우리: 구약시대 유대인 대언자들에게는 교회 시대가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를 이룬다는 계시는 신비로 남아 있었다(엡3:5-6), 교회의 신비(10) 구약의 대언자들이 앞날을 볼 때 초림의 산꼭대기와 재림의 산꼭대기가 하나로 보였다.

초림과 재림의 산 사이에 교회의 골짜기가 들어 있다. 대언자에게는 계시되었으나 알지 못함 이것을 아는 것이 예언 이해의 핵심,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는 불가능

하나님의 세상 역사 주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2:46-47)

이 땅의 모든 왕국과 왕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섭리로 세우신다.

바이든, 푸틴, 시진핑 대개 백성의 뜻에 따라, 백성의 마음이 사악하면 사악한 통치자를 주신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성실히 믿음 생활

결론

사람과 사람의 역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처럼 없어지고 만다.

세상 끝에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늘의 왕국이 도래한다.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초림 때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제공(마3:3; 4:17; 10:7),

그들의 거부, 마23:39가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도래한다.

미래 일들의 개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어 올라가므로 이 땅에 없다.

환난 전 휴거

언제라도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다. (*)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성도로 살자(벧후3:11, 14).